

# IPTV·케이블TV 가입자수 격차 역대 최대

2017년 하반기 IPTV 가입자가 케이블TV를 넘어선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8일 SO, 위성방송, IPTV의 '2020 상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94만 6,826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35만명이 증가했다.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748만 9,664명(51.52%), SO 1,337만 8,742명(39.41%), 위성방송 307만 8,420명(9.07%)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별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IPTV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IPTV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반면 SO는 감소함에 따라 양 플랫폼 간 가입자 수 격차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451만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유료방송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구분	사업자	가입자 수 (6개월 평균)	시장점유율
SO	LG헬로비전	3,925,459	11.56%
	SK브로드밴드	3,005,583	8.85%
	딜라이브	2,005,621	5.91%
	CMB	1,522,168	4.48%
	현대HCN	1,302,026	3.84%
	개별SO*(9개사)	1,617,885	4.77%
	소계	13,378,742	39.41%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3,078,420	9.07%
IPTV	KT	7,588,574	22.35%
	SK브로드밴드	5,303,285	15.62%
	LG유플러스	4,597,805	13.54%
	소계	1,748,9664	51.52%
총계		3,394,6826	100.00%

\* 2020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수 현황.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758만 8,574명(점유율 22.35%), SK브로드밴드 530만 3,285명(15.62%), LG유플러스 459만 7,805명(13.54%), LG헬로비전 392만 5,459명(11.56%), KT스카이라이프 307만 8,420명(9.07%), SK브로드밴드(SO) 300만 5,583명(8.85%), 딜라이브 200만 5,621명(5.91%) 순으로 집계됐다. IPTV 3사의 가입자 수 및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67만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53만명,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831만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42%, 25.10%, 24.4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상반기 가입자수 증가폭이 감소한 이후 약 5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번 2020년 상반기 증가폭은 30만명대에 그친것으로 조사했다.

이번 가입자 수 산정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예외지역 가입자 14만 9,000명 및 공동 수신설비 유지보수 계약자 73만 5,000명은 가입자 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방송서비스가 단일 셋톱박스를 통해 제공되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상품의 가입자 156만여명은 중복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KT 76만 4,000명, KT스카이라이프 79만 9,000명으로 나누어 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산정·검증 결과는 시장점유율 규제 목적에 따라 산출된 결과이며, 실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총 가입자 수와는 차이가 있어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입자 규모를 기반으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가입자 수와는 상이할 수 있다. **KA A** 김다혜 dahye@kaa.or.kr